

알록달록 섬세하신 사랑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

천국과 지옥의 구조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 있는 막연한 곳이 아니다. 여러 공간으로 분류돼 있는 천국과 지옥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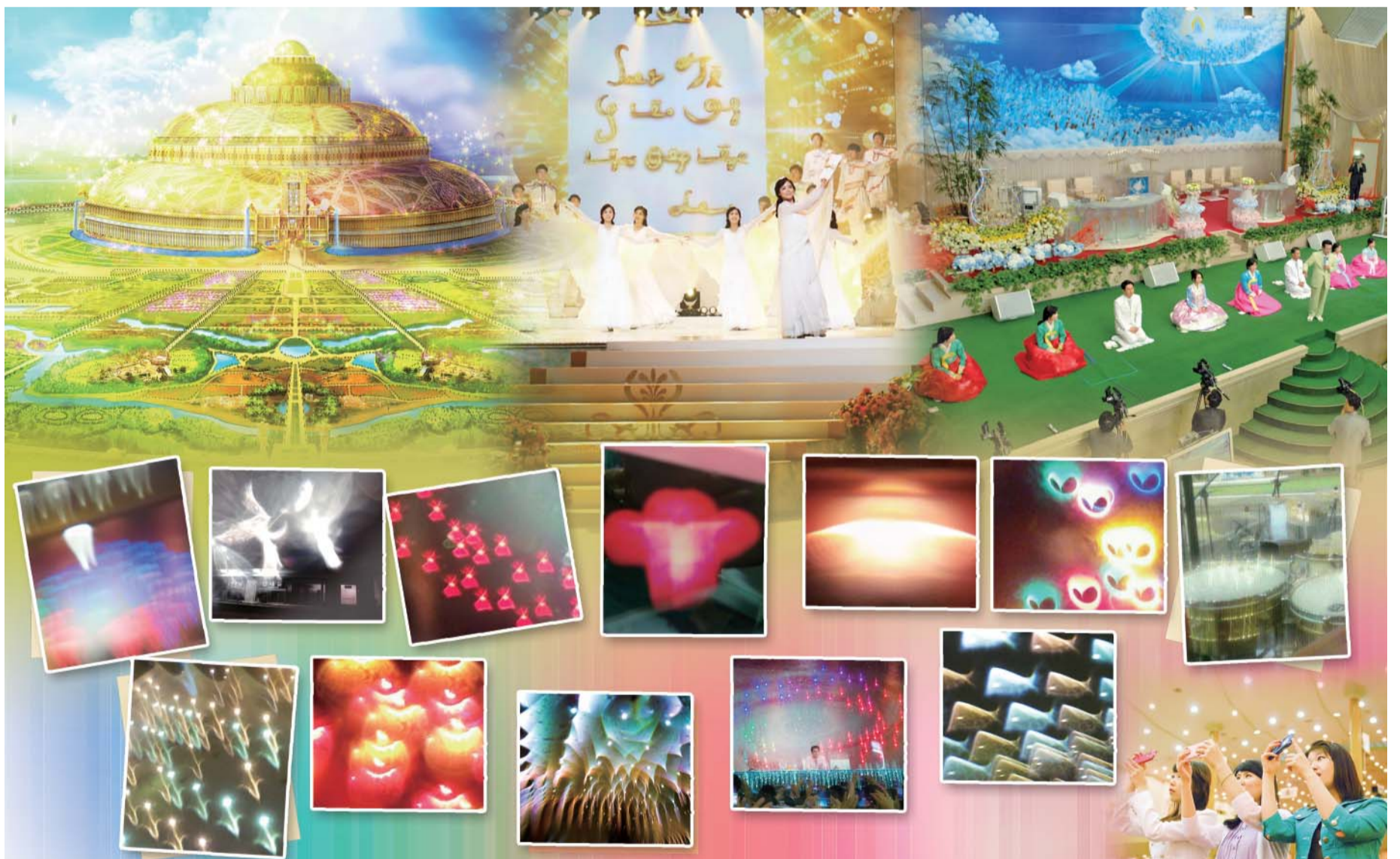
“찬양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성결한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최근 성대결절도 치료받아 영광 돌린 김진희 권사 간증.

만민뉴스

제687호 2015년 5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체험하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 체험을 허락하신다(위의 사진은 왼쪽부터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목자의 성 이미지,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축하공연 '초대장', 2013년 5월 25일 금요철야예배 2부 영 분리의 시간/ 아래 사진들은 성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양한 오로라 빛 형상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예배는 물론 수요일예배, 금요철야예배 등 각종 예배가 차고 넘치며 성결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렇듯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에 많이 놀라곤 한다. 또한 당회장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성도들의 삶에 치료와 응답, 축복이 넘쳐난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매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름이면 만민 성도들의 손끝을 비롯 온몸에 친근하게 날아와 앉는 신기한 잠자리와 수시로 해 주변에 나타나는 무지개 등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가 오로라 빛 형상들이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겔 1:28) 2011년 5월 20일, 성도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형형색색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빛들이 물고기과 과일, 꽃, 주님 형상, 하

트 모양 등 다양한 형상으로 촬영되기 시작했다. 성도들은 오로라 빛 형상을 통해 하나님 근본의 빛을 느끼며 믿음과 천국 소망이 더해질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5월 25일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 12:2) 이처럼 성경에는 몸에서 영이 분리돼 천국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돼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철야예배 2부 시 성결한 영의 마음을 이룬 주의 종과 일꾼 총 8명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한자리에서 영이 분리돼 지옥과 천국의 각 처소(관련 기사 3면)를 보고 온 것이다. 이들은 즉석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천국 처소에 대해 생생히 들려주었다. 이 현장은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천국 시민이 된 기쁨과 감사가 샘솟게 해 주었고, 더

불어 지옥을 보고 온 주의 종의 눈물어린 간증을 통해 주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을 다짐하게 했다. 더욱이 2014년 10월, 교회 창립 32주년부터는 아름다운 천국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목자와 하나 돼 하나님 나라를 창대히 이뤄온 우리 교회의 창립을 맞아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느낄 수 있는 3D 영상이 상영된 것이다. 성도들은 천국에 여러 처소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꼭 가야겠다는 사모함과 동시에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함이 더해졌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체험케 해 주신 것은 자신과 돈을 사랑하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성도로 하여금 이 땅의 썩어질 것을 생각지 않고 위엿 것을 소망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려는 섬세하신 사랑인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1~3)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과 지옥을 비롯한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짐은 물론 천국의 아름다움과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할 때에 느껴지는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을 들 수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입어 술한 핏박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일생 주님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 천국과 천사 등 영의 세계를 봄으로 씩어 없어질 육의 세상이 아닌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영적인 말씀을 알려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에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깨우쳐 주십니다(고전 2:10).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 즉 영의 세계의 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복된 삶을 사는지를 알려 주시지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충만하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죄악으로 인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물뱃듯이 부으시며 폭포수 같은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2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이므로(요일 5:7)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좇으면 성령이 기뻐하시므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비진리를 좇으면 성령이 안에서 탄식함으로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때그때 신호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만 좇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때때로 연약해 큰 죄를 지으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힘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지요. 설령 마음의 귀를 닫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는 영혼이 있어도 다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예컨대, 중한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난 청년을 어떤 부부가 긍휼히 여겨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금세 은혜를 잊고 다시 죄를 짓고 양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양아들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삶이 엉망이 돼도 양부모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들이 포기하면 아들은 전과가 계속 쌓여 결국 무기징역이나 사형선고를 받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공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시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연약해 거듭 범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에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타이르시며 대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십니다. 만약 성령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인생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생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은 이 세대와 각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 매우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신 용서를 구하고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포기하고 싶어 하는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며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영혼도 어찌하든 천국으로,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주기 원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3 내 마음을 알아 나를 도우시는 분

성령은 탄식함으로 우리에게 곤고함을 느끼게도 하시지만 동시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됴이니” 한 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연단을 받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생각할 때도 성령은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표현해 주시며,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고 여겨질 때가 있고,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며 감동이 임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꼭 필요한 기도가 술술 나올 때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앗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나의 말과 행동은 물론 내 마음과 사람들은 모르는 형편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 있는 천사보다도 더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늘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며, 오직 진리만을 좇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친히 목도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자 합니다.

1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

주님을 영접하고 통회자복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 대로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의 은혜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주신 은혜로 2천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며(고전 12:3)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의 세계를 믿고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천국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의 다양한 구조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여러 이름이 나오므로 단순히 동일한 공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천국이 여러 공간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낙원, 혹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는 것이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악을 행한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의 구조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마름모(◇)를 가로로 반을 자르면 위는 삼각형(△)이 되고 아래는 역삼각형(▽)이 나온다. 여기서 위의 삼각형은 천국, 아래의 역삼각형을 지옥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

위의 삼각형에서 꼭대기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고 제일 밑 부분이 율음부이다. 율음부와 낙원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거룩하고 온전해져 새 예루살렘 성이나 3천층에 이른 사람이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이른 사람에 비해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율음부 위에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세상의 건물처럼 1층, 2층, 3층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영의 세계는 이 땅에서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처럼 한계를 그을 수 없고 그 형태를 단정 지어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육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뿐이다.

아래 역삼각형에서 밑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아 심히 악을 행해 깊은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는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 천국은 삼각형처럼 생겼고 지옥은 역삼각형처럼 생겼다고 단정하면 결코 안 된다.

*

천국과 지옥은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다. 더구나 그 중간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아브라함처럼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천국

●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 마음이 성결하고 온 집에 충성한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 처소이다(계 21:2).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어지는 천국 집은 규모나 화려함 면에서 마치 하나의 성과 같다.

주를 위해 포기한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주인의 취향에 따라 특색이 있으며 갖가지 보석에서 나오는 빛깔과 다양한 색채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또 '금면류관'과 '의의 면류관' 등이 상급으로 주어진다(계 4:4 ; 딤후 4:8).

● 마음의 성결을 이룬 영혼들이 들어가는 '3천층'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 처소이다. 천국 집은 2천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며 주인이 바라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복층 구조이다. 개인적으로 수종드는 천사가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계 2:10).

●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2천층'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 처소이다. 천국 집은 1천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단층 구조이며 상급으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벰전 5:4).

●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노력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1천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성도들의 천국 처소이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취향과 기호에 맞춘 아파트형의 천국 집과 '씩지 아닐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전 9:25).

●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낙원'

하나님 자녀라 부르기에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차마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안타까운 성도를 위해 준비된 천국 처소이다(눅 23:43). 낙원의 가장자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 백보좌 대심판(계 20:11, 12)이 있을 때까지 천국 대기 장소로 활용된다.

●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 장소 '율음부'

천국에 속한 장소로서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였다(벰전 3:19).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영의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낙원의 가장자리인 천국의 대기 장소로 옮기게 된다.

지옥

● 지옥의 대기 장소인 '아랫음부'

창세 아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불못이나 유향못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로(눅 16:23), 각자의 죄과에 따라 각각 1, 2, 3, 4단계 형벌을 받는다.

●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불못'과 '유향못'

백보좌 대심판 후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영원히 형벌 받는 곳이다. 아랫음부 1,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 4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향못에 떨어지는데(계 20:10), 유향못은 불못보다 일곱 배나 뜨겁다.

● 악한 영들의 감옥 '무저갱'

무저갱(無底坑)은 글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멍'이다(계 20:3). 이곳은 영의 세계 안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장소로 악한 영들이 영원히 갇히는 곳이다. 무저갱에서는 숨 막히게 죄어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눈동자도 굴리지 못하며 어떤 지옥의 형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낀다.

Thank You

5월, 감사의 달
2015.5.24~5.30

우리의 영혼을 세롭게 하는 방송 GCN

이제부터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죽은 자를 위한 세례 1
- 위로부터 난 지혜 3-7
- 믿음을 축량하시니 1-5
- 공간과 차원 4-7 ■ 생명의 씨 1-2
- 창세기 강해 68-72 ■ 천국 18-24
- 요한계시록 강해 74 ■ 예언 3
- 마음발을 개간하자 5-7 ■ 신뢰

GCN TV설교

- 영의 기도 (이수진 목사)
- 때에 맞는 말 (이미영 목사)
- 나의 수고는?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6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3 (신동초 목사)
- 여호와가 누구관대 (정구영 목사)
- 목자의 사랑으로! (임혁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6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0
- English 13 ■ 옛날 옛적에 1
- 즐거운 요리 1 ■ 내 마음의 찬양 12
- 흥겨운 소리 5 ■ 창조와 과학 9
- 모두 드려요 27 ■ 뷰티풀라이프 10

해외성회 프로그램

- 러시아 연합대성회 1
- 회상 10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모든 꿈이 사라져 화병이 생기고 술과 고스톱에 빠져 살았으나

저는 아버지의 술, 도박, 외도 등으로 부모님의 싸움이 잦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화풀이를 하듯 저를 때리곤 하셨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이 너무 싫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모님 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면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사람을 만나 결국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남편은 불같은 성격으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강한 저는 감정으로 맞서니 부부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는커녕 끝내 화병까지 생겨 남편이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너무 힘든 현실을 잊고자 저는 술도 많이 마셨고, 판돈이 적지 않은 고스톱에도 빠져 살았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답게 꿈을 이루고

1988년 7월, 시누이 마정례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니 그것이 고마웠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왠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으면 평안한데, 집으로 돌아오면 힘든 삶이 여전하니 저는 술과 고스톱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5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는 것을 보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점차 믿음이 성장하니 술과 고스톱도 끊고, 화병도 치료받았지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만큼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기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찬양하는 금빛 성가대에 들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는 예능위원회 찬양팀인 크리스탈싱어즈 부장으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예능위원회 솔리스트가 되는 축복을 받아 예배나 교회 행사 시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제 꿈을 아름답게 이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진 연단은 축복이었습니다”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김진희 권사 (53세, 2대대 12교구)

마음의 깊은 상처와 감정을 발견하며 갱년기 우울증을 치료받아

2012년부터는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활화산처럼 솟아나는 남편의 혈기와 감정, 자녀들에 대한 불만으로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나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행복했고, 사명을 감당하노라 하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지요.

그러던 2013년, 갱년기 우울증이 시작되더니 후반기부터는 6개월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깊다 보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에 대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갔습니다.

긴 밤 잠 못 이루면서 갖가지 생각들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아내가 아닌 여비서로 자신을 섬겨주기만을 바라는 남편의 모습에 힘겨워지며 먹기도 싫고 살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에 '잠자다가 이대로 천국 가면 좋겠다.' 할 때도 있었지요.

자녀들마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이내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제 안에 남아 있는 감정과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설교 후에 해 주시는 당회

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이 치유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고

저는 본격적으로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며 선한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더 애교스럽고 사랑스럽게 남편을 잘 섬겼더라면 남편이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늘 나를 도와줬는데...' 하며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더욱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지요. 또한 아빠 엄마의 불화 속에 자라난 자녀들이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고 자녀들도 더 이해하고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입장이 되어 하나하나 생각해 가니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니 신속히 마음의 악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2014년 4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지요. 최근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성대결절도 믿음으로 치료받아

작년 11월부터 음역 대를 높이기 위해 고음 연습을 했는데 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목이 부었습니다. 올해 1월 초 병원 진단 결과 '성대결절'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병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수술을 받아도 2개월 정도는 말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성대결절은 매우 치명적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더욱 악화될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 보장받으시는 당회장님의 권능을 신뢰했기에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자료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며 더욱 기뻐하며 감사했지요.

2015년 3월, 마침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 산상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당회장님께서 전화로 성도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는데 곧바로 목 소리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던지 한 주 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의사는 수술을 받고 2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더라도 이렇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좋아졌고, 목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지요. 또한 여선교회 회장으로서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것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마문학 집사)도 각종 예배를 드리며 오히려 저를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 또한 제가 겪은 갱년기 우울증, 남편과 자녀들의 문제 등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상담해 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안에서 값진 연단을 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참 행복을 얻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받기 전



기도받은 후



▲ 우측 성대발적색을 동반한 결절이 보이 ▲ 결절이 사라져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동평로 168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물로 76, 3층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 천안민성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 공주민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 서산민교회 충청남도 서산시 금암로 135
● 아산민교회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 사랑민교회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로 135
● 청주민교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 새청주민교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 충주민교회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 마산민성교회 경상남도 마산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 포항민성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 여수민성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목포민성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로 167-82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미시령로 3383 (3층)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성빌딩 3층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D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